가요계 흥행공식 깬 '놀면 뭐하니?' 8인조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 '차트 올킬'…발라드도 통했다

'바라만 본다' '나를 아는 사람' 1·2위 뮤비·음악 프로그램 출연 계획도

8인조 프로젝트 발라드 그룹 MSG워너비가 데뷔곡인 '바라만 본다'와 '나를 아는 사람'으로 각종 음원 차트 1·2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멤버들이 제작자 유야호(유재석·가운데)와 응원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제공 | MBC

화력은 예측을 넘어설 만큼 셌다.

8인조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가 26일 정식 데뷔하며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탄생한 이들은 2000년대의 감성을 내세운 발라드곡으로 '여름=댄스음악'이라는 가요계의 흥행 공식을 깨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데뷔와 동시 1위

MSG워너비는 데뷔곡 '바라만 본다'와 '나를 아는 사람' 등을 27일 오후 현재 멜론·바이브·벅스·한터차트 등 각종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톱10에 안착시켰다. 최신 발매곡 관련 차트에서도 나란히 1·2위에 랭크됐다. 두 곡은 유닛 활동 곡으로, '바라만 본다'는 지석진·KCM·원슈타인·박재정이 뭉친 M.O.M, '나를 아는 사람'은 김정민·사이먼 도미닉·이동휘·이상이의 정상동기가 불렀다.

김정민·원슈타인 등 멤버들은 이날 SNS를 통해 음원차트 1위 소감을 밝혔다. 이동휘는 "금방 잊히지 않고 오랜 시간 사랑받는 노래로 남기를 바란다"며 멤버들의 얼굴을 코믹하게 그린 그림을 올렸다. KCM도 "1집이라는 말이 참 좋다"며 그룹에 대한 진한 애정을 드러냈다.

MSG워너비는 조만간 배우 전여빈과 멤버들이 주인공으로 나선 뮤직비디오와 '완전체' 활동 곡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7월3일 MBC 음악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에도 직접 출연하고 이후 각종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또 관련 음반 세트도 26일부터 예약 판매 중이다. 다른 아이돌 그룹처럼 세트에 멤버들의 포토카드와 부채 등 다채로운 '굿즈'를 담아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음을 알렸다.

●발라드 장르 '붐업 효과'까지

이들의 음원 차트 안착은 댄스음악이 대세로 평가받는 여름 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현상으로 꼽힌다. 특히 브레이브걸스·트와이스·오마이걸 등 아이돌 그룹들이 저마다 '서머 송'을 표방한 신나는 댄스음악을 내놓은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각에서는 멤버 각각의 화제성과 더불어 '놀면 뭐하니?'의 파급력 덕분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프로그램이 3개월간 오디션부터 녹음 현장까지 상세히 다루면서 데뷔 이전부터 온라인상에 팬카페가 등장하는 등 탄탄한 팬덤이 형성됐다. '놀면 뭐하니?'는 비슷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혼성그룹 싹쓰리와 걸그룹 환불원정대를 잇따라 성공시킨 바 있다.

MSG워너비의 성공은 발라드 장르의 '붐업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멤버 구성을 위한 경연곡으로 선정돼 다시 화제를 모은 노래 '체념'의 주역인 그룹 빅마마가 이를 말해준다. 이들은 최근 9년 만에 내놓은 신곡 '하루만 더'를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려놨다. 빅마마는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아 어린 친구들에게는 생소할 텐데 MSG워너비 덕분에 '재소환'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발라드 그룹 SG워너비와 브라운아이드소울도 음원차트에서 과거 히트곡을 '역주행'시키며 새삼 인기를 끌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다크 히어로' 송중기에 푹 빠진 일본

슈칸 아사히 등 특집판 다뤄 '빈센조' 방영 후 뜨거운 인기

'슈칸 아사히' 표지모델

배우 송중기가 일본 시장을 공략하며 다시 한번 스타덤의 위상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일본에서 한류스타로 본격 각광받기 시작한 그는 한동안 주춤했던 열기에 새롭게 불을 지피며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지난해 '사랑의 불시착'이 재점화한 일본 한류의 트렌드를 드라마 '빈센조'로 이어받으며 다양한 잡지 표지모델은 물론 특집 등으로 이를 입증한다.

송중기는 일본의 대표적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발행하는 유력 시사주간지 '슈칸 아사히'(週刊朝日)의 최근호의 표지모델과 커버스토리에 등장한다. 29일 발매하는 7월 2일자 슈칸 아사히는 8페이지에 걸쳐 송중기 특집을 다루며 현지 시선 몰이에 나선다.

슈칸 아사히는 관련 예고에서 이번 특집을 통해 최근 드라마 '빈센조'의 주연으로서 송중기가 일본에서 이끌어낸 인기와 매력 요인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후 '다크 히어로'의 새로운 면모를 보인 그와 나눈 인터뷰를 싣고 "연기자로서 삶의 전환점"으로서 작품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는다. '빈센조'에 열광하는 일본 팬들의 시선을 통해 또 다시 현지 위상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배우 타하라 도시히코와 작가 하야시 마리코의 관련 대담도 게재한다.

이에 앞서 송중기는 최근 세계적인 라이선스 잡지 'GQ'를 비롯해 한류전문 '한류피아' 등에도 표지모델로 등장하며 일본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그만큼 '빈센조'를 통한 현지 인기가 뜨겁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송중기는 '빈센조'에서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 변호사 역을 맡아 연기했다. 악에 맞서 더욱 위악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복수에 나서며 '다크 히어로'의 매력을 뽐어냈다. 올해 2월 일본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인 드라마는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오르는 등 '사랑의 불시착'에 버금가는 인기를 끌고 있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랭킹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빈센조'는 27일 현재 6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송중기는 이 같은 열기에 일본 넷플릭스를 통해 현지 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분간 이어질 '빈센조'의 인기에 힘입어 송중기는 일본 한류스타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전망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NQQ 예능프로그램 '지구에 무슨 129?'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 |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NQQ

우리 교수님은 '예능 스타' 전문가 TV프로그램 인기

권용일·박지선 교수 등 방송인 못지않는 활약

'교수'들이 새로운 '예능 스타'로 떠올랐다. 최근 tvN '알쓸범잡', MBC '선을 넘는 녀석들:마스터-X' 등 토크쇼 방식의 예능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으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인 대학교수들이 방송인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권일용·박지선·김상욱·심용환 교수 등이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KBS 1TV '아침마당'을

비롯해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JTBC '신비한 레코드샵' 등에 출연한 데 이어 최근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NQQ '지구에 무슨 129'에 고정 출연자로 나서고 있다. 프로파일러로 일선 수사현장에서 겪은 범죄 관련 일화를 소개한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알쓸범잡'의 고정 출연해 국내외 각종 범죄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 교수는 "대중에게 범죄의 실체를 전하고,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방송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와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 겸 성공회대 외래교수도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에게 친숙하다. 이들은 최근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역사와 과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있다. 방송인 전현무·김종민·유병재와 공동 진행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도 톡톡히 활약하면서 시청률을 5%대(닐슨코리아)까지 끌어올렸다.

또 각각 '알쓸범잡'과 MBC '심야괴담회'에서도 입담을 과시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인 범죄와 괴담에 자신의 전문분야 지식을 녹여내는 구성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얻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